

지역 소식 통

정읍시, '모두배움터'로
읍면 지역 평생학습 활짝

정읍시가 도심 평생학습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달부터 모두 배움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학습매니저와 강사를 직접 파견해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 강좌를 집 가까이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모두배움터 참여기관으로 총 15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배움터(고부, 덕천, 정유, 상교) △나눔터(북면, 영원, 소성, 상교) △활력터(북면, 태인, 칠보, 산외)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면 지역의 경로당 등을 주요 학습 공간으로 활용해 교육을 진행한다.

모두배움터의 운영 기간은 오는 11월까지이며, 각 프로그램은 총 24차시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가정의 달 맞아
'5월 1+1+1 토크 이벤트'

고창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들의 참여 독려 및 풍성한 혜택 제공을 위해 5월 1+1+1 토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동안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25명에게 3만원 상당의 고창군 특산품을 추가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고향사랑기부금 또는 전국 농협은행과 농축협 지점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당첨자는 6월 9일 이후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특별한 혜택으로 보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1+1+1 토크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 고창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산모 중심 공공산후조리원 탈바꿈

정읍시, 쾌적한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 2026년 10월 준공 목표

정읍시가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이 더욱 쾌적하고 산모 중심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당초 계획보다 부지를 확장하고 설계를 개선해 오는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정읍산병원 인근 용계동 353번지 외 4필지에 총 사업비 84억원(도비 35억, 시비 49억)을 투입,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684㎡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이며, 올해 10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지난해 3월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연면적 1400㎡, 지상 3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기존 용계동 부지의 협소함과 진입로 불편 문제를

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토지를 추가로 매입했다. 이로 인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일부 지연됐으나, 결과적으로는 더욱 향상된 시설을 갖추게 됐다.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함으로써 아산병원 방면 소도로를 활용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부채꼴 모양의 개방형 설계를 통해 우수한 채광을 확보했다. 또한, 연면적 확대로 증별 구조와 공간을 새롭게 재배치해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변경된 설계에는 산모의 동선과 편안한 휴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세심함이 돋보인다.

산모실 10실(특실, 장애인실, 일반 8실)의 면적을 확장해 2층에 배치하고, 곳곳에 아늑한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3층에는 산모들의 심리적 안정과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마사지실, 프로그램실, 휴게데크,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산모들과 방문객들이 이용 가능한 프라이빗한 산책로와 햇살정원을 조성하는 등 자연 속에서 산모들이 최상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간 구성에 초점을 맞춰 설계가 진행 중이다.

이학수 시장은 "인접 토지 매입과 설계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일부 지연된 점이 있으나,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며 최신 설비를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새만금 수변도시 행정구역 결정 대법원 소송 제기

부안군, 수변도시 관할 지자체 결정 법적 대응 나서

부안군은 지난 7일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지난 4월 23일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스마트 수변도시 용지의 매립지에 대해 김제시를 관할 지자체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군은 이번 결정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구역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 개발에 따른 도로망 등을 고려할 때 군이 이 지역의 관할 지자체로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따르며 새만금 지역의 공정한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정에서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새만금이 군을 중심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의 핵심 지역으로서 향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순환리와 지역 간 연결도로를 통해 새만금의 다른 지역들과 긴밀히 연계돼 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이 이 지역을 관할하게 되면 3권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만금 전체적인 내부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의 핵심 지역으로서 향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순환리와 지역 간 연결도로를 통해 새만금의 다른 지역들과 긴밀히 연계돼 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이 이 지역을 관할하게 되면 3권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만금 전체적인 내부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어버이날 은혜에 감사... 곳곳에서 '효(孝) 잔치'

제3회 어버이날을 맞아 정읍시 전역이 부모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따뜻한 효심으로 물들었다. 8일 정읍시 예술화관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져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사했다.

정읍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한 중앙 기념행사는 정읍시 예술화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윤준병 국회의원, 박일 시의회 의장, 임승식·염영선 도의원, 이호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장, 지역 기관단체장 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해 성



황을 이뤘다.

행사는 정읍시립국악단의 감동적인 식전 축하공연으로 막을 올렸으며, 이어 어린이 기념식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효행자와 장한어버이 등 효실전 유공자 6명에게 표

창을 수여했다. 이학수 시장의 기념사와 초청 내빈의 축사도 이어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부대행사로 마련된 금혼식과 회혼식은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오랜 세월 해로한 어르신 부부 3쌍의 모습은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미래세대인 어린이집 아이들의 귀여운 축하 공연도 펼쳐졌으며, 종식으로 영양 도시락을 제공한 후에는 9명이 참가한 은빛가요제가 열려 어르신들에게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농민들과 풍년기원 모내기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역 농민들과 함께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를 실시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민규 고창군의 회 군의장과 군의원들은 8일 오전 신탄면 송음리 모내기 현장을 찾아 직접 이앙기에 올라 모내기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 현장은 기범수(50)씨의 논에서 진행됐으며, 기씨는 신탄면 일대 약 17.9ha의 논에서 쌀을 재배하고 있다.

고창군은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본격적인 모내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벼농사 필수 영농자재인 벼 못자리용 상토와 제조용 우렁이 벼 육묘장, 유기질비료 등 지원사업을 추진해 적기



영농을 지원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업인의 땀과 노력이 우리 고창의 근간이자 미래다"며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위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모내기 현장 방문 농가 격려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8일 계화면 창북리에 위치한 강종식(44)씨 농가의 모내기 현장을 방문해 일손을 돕고 이른 아침부터 모내기에 여념이 없는 농가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내기는 조생종인 '해달쌀'로 진행됐으며 해당 품종은 병충해에 강하고 이발로스 함량이 높아 밥알이 맛있게 씹히며 고슬고슬한 식감이 특징으로 기상 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오는 8월 말에는 햅쌀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부안지역 모내기는 지난 3일부터 진행됐으며 5월 한 달간 관내 전역에서 본격적인 모내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4월 영농발대식 및 풍년기원제를 성황리에 개최해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리고 한해 농사의 풍요와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권익현 군수는 "모내기 작업이 탈 없이 잘 이뤄지고 재해 없이 풍년을 맞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쌀 생산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가족과 함께하는 어버이날

고창군노인요양원, 심덕섭 고창군수 · 보호자 등 150여명 참석

고창군노인요양원(원장 김동현)이 8일 오전 가족과 함께하는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입소자, 보호자,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행복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나눴다.

이날 행사는 △강터체험 △어버이날 노래 부르기 △캐이션 달아드리기 △축하공연 △점심식사 및 보호자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호자와 종사자가 함께 어버이날 노래를 부르고 캐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시간은 참석자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은 고창군노인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7억 원을 투입해 치매전담실을 개관하고, 5억 원 규모의 지붕공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4억 원 예산으로 냉난방배관공사를 추진 중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 어르신들과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고창군노인요양원에서 더 행복하고 활력넘치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